

◇ 선거를 통한 변혁 가능성 진단을 위한 기획 시리즈 <3> — 제3세계 선거와 민주변혁

대중정당 활용, 민주 실현의 교두보



I. 들어가는 말

국권을 비롯한 기존 사회주의의 국들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파탄된 사회주의 실험에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적 요소로서 공히 민주주의의 결말에 따른 판교사 회주의화라는 정치화가 제기한 필연적 결과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내포와 외연은 어떻게 구성되는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적잖이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제제기는 제3세계진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3세계에서도 부족했던 민주주의의 보강책으로서 선거정치와 변혁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제3세계란 (신) 식민지 경험의 결과 '저발전'의 문제와 '민족·계급' 문제의 해결을 공통된 과제로 하고 있는 지역국가군이다. 또한 제2차대전 이후 70년대 이르기까지 식민지 혹은 신식민지로서 독립한 좌파국가군과 여전히 민족문제의 해결을 최대 과제로 하는 우파국가군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좌우가 동거해온 제3세계의 정치현의 성과와 한계를 가장 예리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가두로 비동맹운동을 들 수 있다. 가깝게는 진영으로서의 사회주의가 해체되전,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페레스트로이카가 출범하기 전까지 만해도 비동맹운동은 제3세계 좌파국가군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까닭으로 반제전선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비동맹운동은 '전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사회주의 진영의 여파로 말미암아 제3세계 좌파국가군의 대부분이 붕괴되거나 역관개성 전서방노선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붕괴'의 도미노적 파급의 결과 대륙의 좌파화라고까지 일컬을 수 있었던 아프리카지역의 사회주의 국가군의 붕괴는 정치적으로 선거 정치의 불가피한 수용을 수반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론에 근거한 일당제와 선거정치의 거부가 오히려 좌파정권의 생명을 단축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어떻게 이 지역 좌파세력의 재기전력은 부족했던 민주주의의 복원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선거정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집권을 경험한 바가 있는 적잖은 제3세계 좌파세력이 이제 선거정치에서 자신의 정치력을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제3세계 우파국가군의 좌파세력의 경우는 일찌기 선거정치를 자신의 '힘'의 확산의 전술적 공간으로 파악해왔다. 변화된 국제정치정형이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라면 점차적으로 선거정치를 전략적 국면으로까지 사고하도록 하는 점일 것이다. 거칠게나마 정리할 수 있는 이들 좌파세력의 신노선은 반파시즘 투쟁을 통해 '민주공간'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획득하고 이를 매개로 대중정당운동을 활성화시켜 선거정치에서의 권력획득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중정당운동을 민주주의 실현의 매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참여진 조건에 강제되어 아직까지도 선거정치를 전술공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제3세계 좌파세력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변혁의 전략적 단위로서의 대중정당에 대한 동구주의의 지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제정치 혹은 신식민지로서 독립한 좌파국가군과 여전히 민족문제의 해결을 최대 과제로 하는 우파국가군으로 대별될 수 있었다.

II. 제3세계 사회주의의 붕괴후 선거정치의 대두

사회주의에서 다당제 및 선거정치로의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제3세계의 대표적 국가로서 에티오피아를 들 수 있다.

반제반봉건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974년, 현재의 에티오피아 혁명은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던 교회·대지주·군대 등 3대 지배세력의 붕괴를 의미하였다. 특히 54년간이나 에티오피아를 지배해왔던 셀라시에 봉건왕정을 대체한 혁명정권의 수립은 분명한 역사의 진보였다.

에티오피아혁명은 72~74년에 걸쳐 북부를 휩쓴 과거 20년 이래 최악의 한발과 기근, 74년에 들어오면서 격화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증대, 이에 따른 교사와 학생노조들의 파업, 학생시위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자각적인 지도세력이 될 수 없었던 터라 권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세력이라고는 비교적 공교한 집단에 해당되는 군부의 존재였다. 봉건왕정이 붕괴되면서 혁

명과정에 참여하였던 하급장교를 중심으로 군사행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군사 행정위원회는 좌파 지식인층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주의의 모델을 지향하는 전위당적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그러나 혁명을 주도한 뎡기스투 일인지배체제의 성립은 곧바로 반봉건혁명의 과정에 동화하였던 좌익 학생, 지식인층의 반발을 점증시켰다. 이들 민간 좌

에 참여하였던 뎡기스투 세력의 본질이 어떠한 상관없이 '사회주의'를 표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관계를 긴밀히 해나갔다.

1990년 3월 뎡기스투정권은 반군의 공세재개와 몇몇 동안 계속된 한발로 인해 국내정세가 최악에 이른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포기, 반군의 국경침투와 경제의 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듬해 5월 붕괴되고 말았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각계 정치세력이 참여한 가운데에서의 대선과 총선을 남겨 놓고 있다.

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III. 자본주의하 제3세계 민주변혁세력의 신노선

한편 세계체제의 변화속에서 단력적 대응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제3세계 좌파세력은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 마르티 민족해방전선(FMLN)이다. 이제까지 봉기노선에 주력해온 FMLN은 봉괴된 캄보디아의 폴포트주의와 같은 폐쇄적인 변혁모델을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운동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변혁노선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중의 선거정치 및 정치일반으로 참여하는 변혁의 정치적 방위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평가되어진다.

특히 이들의 민주주의관은 제3세계변혁운동진영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위와 아래로부터 동시에 단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정규적으로 치뤄지는 선거나 국회로부터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대중의 의지에 기초하고 대중과 결합하고 있는 모든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진보적정당운동의 목적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중의 일상적인 권력행사를 지도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대중의 자주관리를 가능케 한다면, 선거민주주의는 혁명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대중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모든 계층의 균형 있는 참가를 가능케하는데 있다고 본다.

FMLN의 이러한 민주주의관은 이들 주제에 입각한 변혁론으로

글쓴이
순서

1. 선거의 역할과 위상 (선거 일반론)
2. 선진 자본국가의 선거
3. 제3세계 선거와 민주변혁
4.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해방이후-70년말)
5. 역대 한국 선거 사례와 그 의미 (80년-92년 총선)
6. 향후 92, 93년 선거에 대한 제언

회에 결맞는 보다 풍부한 유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은 운동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제약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에 대한 강조와 민주주의 확대의 전제로서 변혁대중의 '무장력'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는다. 92년 1월16일 FMLN은 유엔의 중재하에 정부군과 휴전에 합의하였고, 이후 선거정치를 통한 권력 획득을 겨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관되게 무장투쟁을 해온 아프리카민족화(ANC) 역시 지배세력의 개방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정치세력화한 가운데 선거를 통한 집권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민족해방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여온 정치세력이 선거를 통해 집권한 사례는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이다. 나미비아는 89년 11월에 있었던 제헌의회 선거에서 60년 이래 독립을 위해 투쟁해왔고 유엔과 아프리카통일기구 등에 의해 나미비아 국민대중의 진정한 대표로 인정받아온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SWAPO)가 선거에서 승리, 집권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정치를 통한 제3세계 민주변혁세력의 권력 획득 내지는 재기가 결코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로 일컬어졌던 니카라과에서의 산다니스타(FSLN)의 선거패배가 이를 말해준다. 90년 2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집권 좌파 FMLN이 패배했던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으로는 미국의 돈과 무력을 통한 선거정치 개입이었다. 결국 10년 가까이 걸쳐 미국과

분쟁관계에 있음으로 경제개혁과 빈곤에 열을 올렸던 니카라과 대중은 미국이 지원한 야당연합을 택했다. 그렇지만 산다니스타가 실행하고 있는 재기전략은 여전히 선거정치를 통한 권력 획득이다. 이들은 선거패인을 일차적으로 제국주의로부터의 경제봉쇄, 용병을 통한 군사적 행사, 선거국면에서의 직접적인 개입 등의 의인에서 찾고 있지만 스스로가 부족했던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관료적 척결이 그 한 예이다.

이번 5월 선거에서 필리핀의 민족민주세력이 '불참여, 불보이' '전술을 택한것 역시 제3세계에서의 선거정치가 갖는 엄혹함을 염두에 둔 데에서 기인한다. 돈과 공권력이 좌우되는 필리핀 정치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나아가 의회 투쟁이 지니는 제한성에 유의하여 적

극적인 선거참여를 거부하였다.

IV. 전진을 위한 몇가지 과제

이렇듯 일반민주주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제3세계 국가군내에서 선거정치를 통한 변혁을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실험을 경험하였고 또한 소련의 붕괴와 함께 수동적이던 노동적인 다당제를 도입하면서 선거정치를 앞두고 있는 제3세계 사회주의의 어제와 오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3세계에서의 민주변혁과 선거정치는 서로를 전제하는 모순의 관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 제3세계 민주변혁세력의 과제란 그간 부족하였던 민주주의를 보장하면서 대중과의 양적 질적 결합력을 높여 선거정치를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강제해내고 역으로 선거정치와 의회제를 통해 '힘'을 강화해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의되어야 할 점은 선거정치와 민선정권하에서 변혁운동세력이 취하게 되는 공·부정의 양면성이다. 즉, 민선정권하에서 변혁운동세력이 스스로 만들어낸 제한된 정치적 공간은 대중적 압력의 행사, 파업, 대중동원, 그리고 정보의 교환을 위해서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80년대에 군부정권에 이어 광범위하게 민선정권이 수립된 중남미지역에서 보여지듯이 대중과의 접촉면이 넓은 진보적 정치세력일 경우 민선정권의 공략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 표현을 위한 정치적 공간은 양보하고 사회화 동원은 제한하는 동시에 권위적 국가권력과 반민주적 경제발전 모델은 다시금 공고화하는 이른바 선거정치로의 이행의 모순적 성격이다. '선거정치로의 이행'을 민주주의의 완성인 것처럼 선전하는 민선정권이 행하는 의사 민주주의 중화이기도 하다. 이와함께 민선정권은 '조직적'으로 퇴각해 있는 군부와의 제휴를 통해 중추관계의 정치화(Clientele politics)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려고 한다.

결국 현단계 제3세계 민주변혁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주된 축면이라고 한다면 제3세계 정치의 주된 변수인 금력과 권력, 지역대결, 대중운동 통제 등의 주요요소를 타파한 '새정치'의 창출일 것이다. 다시말해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선거정치의 창출, 민주주의와 함께 가는 '운동', 분열을 극복한 통일된 운동만이 변화된 국제정치 지형속에서 수세적 지위에 있는 제3세계 민주변혁운동의 활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박은홍

<한국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미국 등 제국주의 개입으로 선거혁명 낙관 어렵기도
변혁위해 선거정치 창출과 장외투쟁 병행돼야

니카라과 민주주의의 정치개입은 선거정치나 국회로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의지에 기초해야 한다

익세력들은 뎡기스투의 민족민주혁명 강령이 허구임을 지적하면서 반군정투쟁을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이미 혁명의 성과를 군부가 독점하는 데에 반발, 민간과 의정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에티오피아인민혁명당을 결성한 터였다. 이와 동시에 뎡기스투정권이 봉건왕정에 이어 민족차별정책을 계속함에 따라 에리트리아 등 소수민족들의 반군정투쟁 역시 격화되었다. 이에 뎡기스투정권이 과장적인 폭력력을 동원, 이들 반군정 세력에 대한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뎡기스투정권이 반군정 투쟁을 진압하고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데는 소련의 지원이 주요하였다. 소련은 친미적 봉건왕정의 타도

이외에도 89년 12월 베냉의 집권 인민혁명당(PRPB)은 경제 침체에 기인한 폭동사태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포기와 북수정당제로의 이행을 결정. 선거 결과 좌파정권이 되었는데, 이어 90년 7월에는 모잠비크의 집권 모잠비크해방전선이 북수정당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신헌법 초안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11월에는 모잠비크인민공화국을 모잠비크공화국으로 그 국명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아공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반정정 게릴라의 세력확대를 우려한 대다수 농민들의 일당독재 폐기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만 대체로 막을 수는 없었다. 현재 모잠비크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중

수정되어야 할 불가피성을 1960년대 베트남전쟁 시기와는 다른 중증적 다국적 세계체제에서 찾는 이들. 이들은 고전적 모델에 근거한 변혁과 당체제, 전략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려는 교조주의와 정통적 사고와 투쟁을 선언하면서 현실을 반영하는 유연한 민주적 프로그램, 예컨대 민주주의와 정당운동에 대한 적극적 사고를 제정한다. 이들은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민주적 선거와 여러 정당에 의거한 국내적 정치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중은 이를 통해 국가의 의사결정과 정치, 경제, 사회적 관리를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변혁을 옹호하는 사회 세력들의 정치참가가 균형을

이어진다. 즉 이들은 '이념'을 초월하여 일당체제가 엘살바도르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으며, 더욱이 혁명세력의 단일정당으로의 통합을 일당제와 혼동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FMLN은 실제로 고전적인 혁명적 담이론을 엘살바도르의 혁명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본다.

엘살바도르에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적 지도세력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불세비키 혁명 명에 채택된 모델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간계급과 기독교도, 부인, 기타 계층의 참가는 엘살바도르의 사회주의에 동구 사회주의의 고전적 모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부여한다고 본다. 혁명세력간에는 다당제 사

회 변혁을 통한 권력 획득이다. 이들은 선거패인을 일차적으로 제국주의로부터의 경제봉쇄, 용병을 통한 군사적 행사, 선거국면에서의 직접적인 개입 등의 의인에서 찾고 있지만 스스로가 부족했던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와 관료적 척결이 그 한 예이다.

이번 5월 선거에서 필리핀의 민족민주세력이 '불참여, 불보이' '전술을 택한것 역시 제3세계에서의 선거정치가 갖는 엄혹함을 염두에 둔 데에서 기인한다. 돈과 공권력이 좌우되는 필리핀 정치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나아가 의회 투쟁이 지니는 제한성에 유의하여 적

「축」장간 37주년 지령 1000호

「슈마(SURMA)강의 기적」



방글라데시에 한중의 혼을 심고 있습니다.

주민의 70%가 이슬람교도로 곳곳의 모스크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나라. 세계 전체 황야생산의 40%를 생산, 황마의 수출이 나라전체 수출총액의 70%에 달하는 나라. 5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에 전국토의 2/3가 침수되고,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사이클론'이라 불리는 맹풍만 태풍이 내습하는 나라. 1년에 3도작의 벼농사로 농업이 국내총생산의 55%에 달하지만 해마다 100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 그리고도 갖은 홍수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와 파멸한 인구로 식량부족에 허덕이는 나라— 방글라데시. 지구상의 최빈국 방글라데시에도 한중인들은 땀과 노력으로 우리의 정신을 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중인이 일으켜야 할 땅

50톤이나 되는 시멘트 원료분쇄기(RAW MILL)를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인간의 힘으로 하역해서 운반하는 곳 — 방글라데시.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첨단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과거의 땅 방글라데시에서도 기적을 낳는 한중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자락(CHHATAK)에 연산 26만7천톤의 시멘트 공장이 한중인들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감탄케한 한중인의 열정

장기간의 피지배 생활과 뿌리깊은 카스트제도의 구습으로 외부인들을 종처럼 신뢰하지 않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밤을 밝혀 그들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일하는 한중인들의 모습이 그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한중인을 보고 감탄했고, 마침내 한중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슈마강변의 기적 — 한중인의 손으로!

시멘트공장의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슈마(SURMA)강은 원료수송과 완제품출하의 중요한 물줄기를 담당합니다. 잠조로 뒤 덮힌 땅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고 그 위에 심장박동만들거나 힘찬 기계 소리가 슈마강변에 울려 퍼질 때까지 한중인의 땀과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중공업(주)

